

# “완전히 새롭게 단장,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할 것”

## 〈딘스안경〉 봄맞이 세일 ... 본보 독자 위한 선물도 준비

과거 오렌지카운티(OC)에 거주하는 한인들 가운데 안경을 맞추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LA한인타운을 찾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거꾸로 LA거주 한인 가운데 OC나 근처에 있는 한인 안경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딘스안경〉의 넓은 매장에는 2,000여 종의 다양한 안경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딘스안경

세리토스 인근 레이크우드에 있는 〈딘스안경〉에 따르면 LA한인들이 〈딘스안경〉을 찾아와 안경을 맞추는 경우가 늘었다. 〈딘스안경〉은 그 이유를 LA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코로나 상황과 가격이라고 분석했다. 〈딘스안경〉이 표방하고 있는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되 적정 마진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영업 정신이 LA한인들의 발길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 ◆ 2,000여 종의 선택권

〈딘스안경〉 측은 “〈딘스안경〉 가면 최소한 후회는 없다고 할 정도로 가격이 정직하고 무엇보다 거대한 가게 규모만큼 엄청난 선택권을 자랑한다”고 전했다. 〈딘스안경〉은 세일가로 20불에 구매 가능한 한국산 패션 안경테부터 최고

급 브랜드 안경까지 2,000여 종의 안경을 전시하고 있어 방문하는 누구라도 자신의 취향에 꼭 맞는 안경을 고를 수 있다. 다양한 새로운 명품 브랜드 선글라스와 안경이 새로 런칭되었으며,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딘스안경〉은 최근 대규모 리모델링을 통해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딘스안경〉 측은 “〈딘스안경〉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리모델링 또한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다들 불황이라고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딘

스안경〉으로 발걸음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 ◆ 정확한 검안

〈딘스안경〉 측은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안은 기본’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최첨단 기기와 시설, 안경을 맞출 때 가장 중요한 시력 측정의 경우 최첨단 측정 시스템, 자동 추적 검안기를 도입,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력 측정을 하고 있다.

3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봄맞이 세일에서는 프리미엄 다초점 렌즈를 정가 360달러에서 50% 할인된 180불에 구매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다초점 렌즈 구매 시 빛 반사 차단 코팅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 법인설립과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전 대기업 CFO  
오랜 실무경험

공인회계사  
오승윤



- Income Tax Return
- Corporation Set-up & Dissolution
- Tax Planning Service
- Tax Audit Representation
- Payroll Services
- Sales Tax Return
- 사업체 분석
- Accounting System 상담
- Member of C.S.

714.522.1120

6281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Beach + Commonwealth) / 유니티 은행 뒤

**Michael S. Oh CPA**

### ◆ ‘타운뉴스’ 독자 위한 선물 행사

‘타운뉴스’ 독자들만을 위한 선물 행사도 펼친다. 3월 한 달 동안 ‘타운뉴스 스페셜’ 로1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접이식 돋보기를 무료로 제공한다. 단, 돋보기는 수량이 한정돼 있어 모든 고객들에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꼭 ‘타운뉴스’ 독자임을 밝혀야 한다. 일요일도 오픈한다. 단, 수요일에는 문을 닫는다.

▶ 문의: (562) 282-5716

▶ 주소: 21053 Bloomfield Ave.  
Lakewood, CA 90715

# “연방정부 서비스 한국어 등 외국어로도 제공해야”

미국 상원의원 19명이 연방정부의 정보와 자료를 한국어 등 영어 이외의 다양한 언어로 제공할 것을 연방정부측에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실은 전날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코리 부커(뉴저지), 라파엘 워녹(조지아), 태미 덕워스(일리노이), 페이지 히로노(하와이)

등 상원의원 19명이 지난 10일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닌 사람들은 영어로만 작성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정부의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며 “법무부 장관은 연방기관에 (영어가 아닌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언어 이용계획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라”고 밝혔다.

연방기관 웹사이트에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언어 이용 계획은 중요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소프 의원은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된 보도자료에서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6천700만 가구가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구는 100여 만 가구에 달한다”며 “이들 한인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국어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Implant  
**\$1,500**

잇몸치료  
**\$600**

Exam  
X-ray  
Cleaning **\$60**

Crown  
**\$700**

틀니  
**\$2,000**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Dr. Seong Hoon Cho  
DDS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